

왜화제처리후 일장처리가 동자꽃과 기린초의 분화 상품성에 미치는 영향

서종택* · 유동림 · 이현숙 · 남춘우 · 김수정
고령지농업연구소 원예과

Effects of Photoperiod after growth inhibitor treatments on commercial value of several wildflowers

Suh, Jong-Taek* · Yoo, Dong-Lim · Lee, Hyeon-Suk · Nam, Chun-Woo · Kim, Soo-Jeong
*National Institute of Highland Agriculture, RDA, Pyeongchang 232-955, Korea

연구목적

초장이 큰 자생화들 중에 왜화제를 이용하여 초장을 왜화시키는 것은 잘 되나 개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본 시험에서는 왜화제 처리후 일장조건을 달리했을 때 개화특성을 구명하여 분화의 상품성을 높이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기린초와 동자꽃을 3월 파종하여 50일간 육묘한 묘를 4월 중순 직경 10cm 화분에 분식하여 재배하였다. 왜화제처리는 종류별 농도를 무처리, Uniconazol(2ppm), Diniconazol(100ppm)을 화분당 50ml를 6월 30일에 토양관주 하였으며 사용한 왜화제의 유효성분은 Uniconazole 10%, Diniconazole 5% 였다. 또한 일장처리는 16시간, 12시간, 자연일장을 처리하였으며 자연일장은 7월 1일(14:44시간) - 8월 30일(11:01시간)까지 약간씩 줄어들었다. 시험구배치는 완전임의배치 3반복으로 하였으며 생육 및 개화 특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동자꽃의 왜화효과는 유니코나졸이 디니코나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일장처리에 있어서는 12시간일장이 16시간 일장보다 초장은 작았으나 개화시가 9일 늦었고 화경수와 화수는 적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니코나졸 처리후 자연일장에서 재배하는 것이 왜화효과와 화수가 많아 상품성이 높았다.

기린초의 경우는 무처리에 비하여 왜화제 처리가 왜화효과가 컸으며 12시간일장에서는 무처리도 왜화되었지만 왜화제 처리는 모두 왜화효과가 있었다. 또한 자연일장과 16시간 일장에서도 왜화제 처리에 의한 초장의 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염수에 있어서도 초장과 같은 경향이었으나 분지수에 있어서는 반대로 12시간 일장에서 많은 경향이였다.